

THE PEARL OF TORAH - YEHUDAH

Pearl

Jude's central concern is not merely that false teachers exist, but that corruption can enter **from within the covenant community**. "Certain men have slipped in..." (Jude 4). The greatest spiritual dangers are often not those openly opposed to truth, but those that remain near the truth while quietly changing its meaning.

Therefore Jude urges believers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et-apart ones"** (v. 3). The faith is something **received**, not something each generation is free to reinvent. This echoes Torah: **"You do not add to the Word which I command you, and you do not take away from it"** (Devarim 4:2).

Jude then reaches deeply into Israel's history: the generation delivered from Mitsrayim yet destroyed through unbelief (v. 5), rebellious heavenly beings (v. 6), Sedom and Amorah (v. 7), Qayin, Bil'am, and Qorah (v. 11). His message is striking: **past participation in holy things does not excuse present rebellion**.

Yet Jude does not tell the faithful merely to identify everyone who is wrong. He turns the examination inward: **"But you, beloved ones, building yourselves up on your most set-apart belief...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Elohim"** (vv. 20–21). Before guarding the community, we must guard the condition of our own heart.

유다의 중심적인 염려는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으니..."(유다서 4). 가장 위험한 영적 위협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합니다(3 절).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가 마음대로 다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Torah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Devarim 4:2).

유다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깊숙이 들어갑니다. 미츄라임에서 구원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멸망한 세대(5 절), 반역한 천상의 존재들(6 절), 소돔과 아모라(7 절), 카인과 빌암과 코라(11 절)를 언급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거룩한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반역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믿는 자들에게 누가 잘못되었는지만 찾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Elohim의**

Even correction must therefore contain mercy: **“show compassion toward some who are doubting”** and rescue others “out of the fire” (vv. 22–23). Truth without discernment becomes compromise, but zeal without mercy can become cruelty. Jude holds the two together: **guard the truth fiercely, but seek the wandering person compassionately.**

The deepest pearl appears at the end. After repeatedly commanding believers to **keep themselves**, Jude declares that Elohim is the One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v. 24). We keep ourselves because ultimately **He keeps us**. Human vigilance and divine preservation are not enemies; they work together.

Final Synthesis

Jude is a warning against **spiritual familiarity without spiritual faithfulness**. Israel had experienced deliverance; Qorah stood among the covenant people; Bil'am knew something of the word of Elohim—yet knowledge and proximity did not guarantee obedience.

The answer is not fear, isolation, or endless suspicion. Jude gives a positive path: **build yourself in faith, pray, remain in Elohim's love, wait for mercy, show compassion, rescue the endangered, and trust Elohim to keep you.** Thus contending for the faith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20–21 절). 공동체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합니다(22–23 절). 분별 없는 사랑은 타협이 될 수 있지만, 긍휼 없는 열심은 잔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둘을 함께 붙잡습니다. **진리는 단호하게 지키되, 길을 잃은 사람은 긍휼로 회복시키라.**

가장 깊은 진주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명한 후, Elohim 께서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24 절).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깨어 있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합니다.

유다서는 **영적 친숙함은 있으나 영적 신실함이 없는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고, 코라는 언약 백성 가운데 있었으며, 빌암은 Elohim 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가까이 있음 자체가 순종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은 두려움이나 고립이나 끊임없는 의심이 아닙니다. 유다는 적극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며, Elohim 의 사랑**

begins not with winning arguments but with becoming faithful ourselves.

안에 머물고, 긍휼을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험에 빠진 자를 건져내며, Elohim 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라.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실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Mussar

Do not ask only, “Is my doctrine correct?” Ask also, “Is my life faithful to the truth I claim to believe?”

“내 교리가 옳은가?”만 묻지 말고, “내 삶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진리에 신실한가?”라고 물으십시오.

Jude’s warning is especially powerful because most of his examples concern people who had encountered sacred things. Spiritual experience can become dangerous when yesterday’s encounter with YHWH becomes an excuse for today’s disobedience.

유다의 경고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그가 제시한 많은 사례가 이미 거룩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야훼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영적 경험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Guard the truth. Guard your heart. Show mercy to the wavering. And remember that while you are guarding what YHWH entrusted to you, YHWH is guarding you.

진리를 지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야훼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동안, 야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